

동남아 테라와다의 정체성 확립과 바왕가(bhavaṅga) 개념의 전개 (3) — 『뻏타나(Paṭṭhāna)』 제2권 용례 ①~⑱을 중심으로

김경래
동국대학교
wizkyung@naver.com

I. 서론
II. Context

III. 심소법과의 결합: 용례 ①~⑱
IV. 결론

요약문

본 연구는 동남아 테라와다 전통이 정립한 아비담마 개념인 ‘바왕가(bhavaṅga)’의 전개사를 다루는 세 번째 논문이다. 논자는 바왕가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빠알리(Pāli) 문헌을 검토함으로써, 테라와다 전통이 정립한 고유한 아비담마 체계의 특징 및 전개사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일련의 연구과정을 통해 향후 ‘초기불교’의 (전승자들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대변자로 여겨지고 있는 테라와다 전통의 성립과정과 역사성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조망해보고자 한다.

앞서 논자는 초기의 바왕가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넛피빠까라나(Nettipakaraṇa)』와 『뻏따꼬빠데사(Peṭakopadesa)』에서 발견되는 바왕가 용례들을 검토했다. 그 결과, 초기 바왕가 개념은 윤회를 활성화 시키는 ‘존재(bhava)의 요소(aṅga)’, 특히 12연기의 항목들을 지칭하는 용어였음을 확인했다. 이후 『밀린다빵하(Milindapañha)』에서 바왕가는

꿈꾸지 않는 깊은 수면상태를 지칭하는 용어로 규정된다. 그리고 이 용례들을 기점으로 바왕가는 심법의 범주에서만 다루어지게 되며, 더 나아가 심의 비활동 상태와 연속성을 변호하는 특수용어로 거듭나게 된다. 바왕가가 아비담마 전문용어로서 인식과정 이론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뺏타나(Patthāna)』에 이르러서였다. 『뺏타나』 제1권에는 바왕가가 총 10회(8문장) 언급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바왕가는 심법으로서 ‘이속-무기심’에 해당하고, 전향과 바왕가심에게 무간연으로 조건이 되어준다.

이상의 논의들에 이어 본 논문에서는 『뺏타나』 제2권의 용례들 중 심소법과 관련된 17가지 문구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바왕가가 다섯 가지 ‘禪의 요소들’ 중 네 가지 심소법들(伺, 喜, 樂, 捨)과 함께 일어날 수 있으며, 삼계와 출세간에서 모두 발생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뺏타나(Patthāna)』, 바왕가(bhavaṅga), 尋(vitakka), 伺(vicāra), 喜(pīti), 樂(sukha), 捨(upekkhā)

I. 서론

본 논문은 테라와다 아비담마 개념인 ‘바왕가(bhavaṅga)’의 전개사를 검토하는 세 번째 연구이다. 이에 논자는 앞서 다룬 버마 제6차 결집본(Chatthasaṅgāyana) 『뺏타나(Patthāna, 이하 Patt)』 제1권에 이어 제2권에서 발견되는 33개의 바왕가 용례들 중 심소법과 관련된 17가지 문구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논자가 전개했던 논의들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¹⁾ 바왕가(bhavaṅga)라는 용어가 빠알리 문헌에서 처음 언급된 것은 『삐따꼬빠데사(Peṭakopadesa)』와 『넛띠빠까라나(Nettipakaraṇa)』였다. 이 초기문헌들 속에서

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경래, 「동남아 테라와다의 정체성 확립과 바왕가(bhavaṅga) 개념의 전개(1): Nettipakaraṇa와 Milindapaṇha를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제48호(서울: 불교학연구회, 2016), pp.257-282; 김경래, 「동남아 테라와다의 정체성 확립과 바왕가(bhavaṅga) 개념의 전개(2): 『뺏타나(Patthāna)』 제1권(Chatthasaṅgāyana vol.1)을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제50호(서울: 불교학연구회, 2017), pp.199-225 참고.

바왕가는 ‘존재(bhava)의 요소(aṅga)’를 의미하는 일반 술어로서, 특히 연기법의 정형구를 구성하는 12가지 항목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던 용어였다. 따라서 초창기 바왕가는 향후 전개될 아비담마 전문용어로서의 특징을 지니지 않았음은 물론, 심법(心法)과 색법(色法)을 모두 포괄하는 일반적인 용어였다.

바왕가가 심법의 맥락에서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밀린다뻡하(Milindapañha)』에서 부터였다. 다양한 철학적 논의를 담고 있는 이 문헌 속에서 바왕가는 꿈조차 꾸지 않는 깊은 수면상태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비활동 상태로 전환된 기존의 활동心이 잠서 머무는 모종의 심적 공간으로 묘사된다. 『밀린다뻡하』는 기존에 사용되던 일반 용어 bhava-aṅga를 차용하여 비활동心, 즉 ‘心이 바왕가에 든 상태(citta bhavaṅgagata)’라는 새로운 심상태를 설정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니까야의 기존 六識체계만으로는 다소 모호할 수 있었던 인식의 공백상태-예컨대, 꿈조차 꾸지 않는 깊은 수면상태 혹은 멸진정과 같은 특정한 심리상태-를 설명한다. 이러한 용례는 이후 완성될 바왕가의 최종형태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아비담마 전통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빠따꼬빠테사』와 『넛띠빠까라나』와는 차별화된 단계, 즉 비활동 상태의 심법을 변호하기 위한 논의로 확장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바왕가는 아비담마 칠론 중 마지막 논서인 Patt에 이르러, 비로소 인식과정의 토대를 제공해주는 전문용어로 거듭나게 된다.²⁾ Patt 제1권의 용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왕가의 특징은 다음의 네 가지였다: ① 바왕가는 異熟-無記法の 범주에 속하는 心法이다; ② 전향을 일으키는 조건이 된다; ③ 또 다른 바왕가, 즉 죽음심(cuti-citta)과 재생심(upapatti-citta)을 위한 조건이 된다; ④ 무간연(anantarapaccaya)³⁾을 조건으로 삼는다.

2) 바왕가의 개념정립과정에서 『해탈도론』의 용례는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만 한다. 이 논서는 아비담마 칠론에 비해 연대기적 선후 관계에 있어서 훨씬 후대에 속한다. 그럼에도 바왕가의 용례는 『뻗타나』의 용례들보다 발전된 논의를 보여주고 있다. 『해탈도론』에서 발견되는 바왕가의 용례에 대해서는 김경래, ‘Observations on the term Bhavaṅga as described in the Jié tuō dào lùn (*Vimuttimaggā): Its proper English translation and understanding’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Springer, 2018, forthcoming) 참고.

3) 인식과정이론과 무간연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경래, ‘Avīci Hell and Wújiān in the Cognitive

Patt 제1권의 용례들은 향후 테라와다 아비담마에서 핵심 개념으로 거듭나게 될 새로운 전문용어로서 바왕가를 묘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Patt 제1권에 이어 제2권에서 발견되는 33개의 용례들 중 17가지 문구들을 검토함으로써, 앞서 확인했던 네 가지 특징을 재확인하고, 더 나아가 추가적인 바왕가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⁴⁾

II. Context

본 논문에서 다룬 Patt의 바왕가 용례들은 心所法(cetasikā dhammā)과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제1논서인 『담마상가니(Dhammasaṅgaṇi, 이하 Dhs)』 서두에 언급된 마띠까(mātikā, Sk. mātrkā)와 그 세부 해석들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에 Patt는 Dhs에서 다루고 있는 구체적인 개념설명은 생략한 채 다양한 아비담마 개념을 도입하여 복잡한 심법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⁵⁾ 이에 논자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바왕가 용례들과 관련된 Dhs의 마띠까와 심소법 해설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Dhs와 Patt의 제작시기가 동일한 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문헌학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들이 동일 부파에서 전승된 논장에 포함된 논서들이라는 점에서, 두 논서 간의 상호 비교 연구는 바왕가 용례 이해를 위한 필수 작업이 될 것이다.

Process: Observations on Some Technical Terms in the Jié tuō dào lùn (*Vimuttimaggā),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44, (Springer, 2016), p.950.

- 4) 논자가 다루고 있는 버마 제6차 결집본은 이전 논문과 마찬가지로 <Patthana - Conditional Relations Studies (<http://patthana.net>)>에서 제공하는 로마나이즈 편집본이며, 본 논문에 기재한 Patt의 페이지 역시 이 사이트의 구분을 따랐다.
- 5) Patt에 대한 전체 구조와 인식과정이론이 지닌 특징에 대해서는 Lance Cousins, 'The Paṭṭhāna and the Development of the Theravādin Abhidhamma', *Buddhism IV*, ed. by Paul Williams(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5), pp.52-70. <*.*Journal of the Pali Text Society* 9: 22-46, 1981>; Pyi Phyo Kyaw, "Paṭṭhāna (Conditional Relations) in Burmese Buddhism"(Dissertation, King's College London, 2014), Introduction; Wandoo Kim, "The Theravāda Doctrine of Momentariness: A Survey of Its Origins and Development"(Dissertation, Balliol College, Oxford, 1999), pp.102-104 참고.

1. 심소법(cetasikā dhammā)

초기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심법의 기본전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은 반드시 일정한 조건 - 인식대상과 인식기관, 그리고 이들 간의 접촉 - 을 통해 일어난다. 둘째, 심은 결코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반드시 다른 4가지 蘊들과 함께 지속된다. 셋째, 심은 명색(색-수-상-사-작의)과 상호조건 관계를 이룬다. 따라서 심은 명색(혹은 최소한 명) 없이는 발생할 수 없다.⁶⁾

경장에 근거한 이와 같은 기본 전제들을 바탕으로 아비담마 전통은 일련의 연속적인 심법들을 다수의 인식행위로 분석했으며, 더 나아가 이들을 두 개의 요소인 心(citta)과 心所(cetasikā: 복수형태)로 구분했다. 이러한 아비담마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경장의 전거를 토대로 한다.

想(saññā, 관념)과 受(vedanā, 감수작용)는 心에 속하는 것들(cetasikā)이다. 이 법들은 心에 속박된 것이며, 그러므로 想과 受는 心行(citta-saṅkhāra), [즉 心으로 하는 의도적 행위]이다.⁷⁾

위의 인용문에 언급된 cetasikā가 아비담마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로서의 ‘心所法(cetasikā dhammā)’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心에 있는 것(ceta+ika)’을 의미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위의 인용구에 언급된 cetasikā라는 표현은 아비담마 해석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준다. 이 전거를 토대로 아비담마 전통은 새로운 네 가지 범주 - citta, cetasikā, rūpa, nibbāna - 를 확립했고, 심법을 식은과, 심소법을 수상행은과 동일시했다. 그리고 심법과 함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심소법을 총 52가지로 규정했다.⁸⁾

6) Y. Karunadasa, *The Theravāda Abhidhamma: Its Inquiry into the Nature of Conditioned Reality* (Hong Kong: Center of Buddhist Studies, The University of Hong Kong, 2010), pp.68-75; 까루나다사가 밝힌 이 세 가지 전제들에 대한 전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Majjhima Nikāya I pp.25-259; Saṃyutta Nikāya IV pp.67-69; 둘째, Saṃyutta Nikāya III p.53; 셋째, Saṃyutta Nikāya II pp.3-4.

7) saññā ca vedanā ca cetasikā eṭe dhammā cittaṭṭibaddhā, tasmā saññā ca vedanā ca cittasaṅkhāro ti. Majjhima Nikāya I (44. Cūlavedalla Sutta) p.301.

8) 후대 주석전통에서는 함께 생멸하고 동일한 인식대상과 토대를 지닌 채 심법과 결합하는 52가지

심법은 결코 심소법 없이 발생할 수 없고, 심소법 역시 심법 없이는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초기문헌에서 ‘심이 발생했다’는 표현 이면에는心和 함께 발생한 심소법 역시 반드시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⁹⁾ 이러한 심법과 심소법들 간의 관계는 일련의 인식과정이 언제나 이들의 결합을 통해 발생한다는 것, 즉 인식과정이 결코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처럼 심법과 심소법들은 서로 복잡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상호 의존적인 결합을 이어가는데, 이들의 조건과 결합을 분석한 논서가 바로 제7논서인 Patt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볼 Patt 제2권의 바왕가 용례 ①~⑰에 언급된 심소법들은 총 5가지 - vitakka, vicāra, pīti, sukha, upekkhā - 이다. 이들 중 위딱까(vitakka)는 1류 동사어근 √tark에 접두어 vi가 첨가된 vitarkaḥ¹⁰⁾의 빠알리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추리, 상상, 생각 등의 의미를 지니며, 尋으로 한역된다. 위딱까와 함께 등장하는 위짜라(vicāra)는 1류 동사어근 √car에 접두어 vi가 첨가된 것으로, 조사, 검사, 검토 등을 의미하며 伺로 한역된다. 이들에 대한 현대 학자들의 해석은 서로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게틴(Rupert Gethin)은 ‘application of thought’와 ‘examining’으로, 하비(Peter Harvey)는 ‘applied thought’와 ‘examination’으로, 보디(Bhikkhu Bodhi)는 ‘initial application’과 ‘sustained application’으로 각각 번역했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이전의 연구 자료들을 절충하고 『위숫디막가(Visuddhimagga)』를 참고하여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로 번역했다.¹¹⁾

법들을 ‘심소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ekuppādanirodhā ca ekārammaṇavattukā cetoyuttā dvipaññāsa dhammā cesikā matā. Abhidhammattha Saṅgaha 2.1.

9) 주석서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 “또한 마치 왕이 왔다고 말할 때, 수행원 등등 또한 왔음을 말하듯, 이와 같이 ‘心の 일어남’이라고 말할 때 그것들과 결합된 법들을 말한 것이다(yathā pana rājā āgato ti vutte amaccādinam pi āgamaṇam vuttam eva hoti evaṃ cittuppādā ti vutte tehi sampayuttā dhammā pi vuttā va hotī ti).” Atthasālinī p.410.

10) Apte p.1436.

11) Apte p.698; R.P. Wijeratne and Rupert Gethin, *Summary of the Topics of Abhidhamma: Exposition of the Topics of Abhidhamma* (Oxford: The Pali Text Society, 2002) p.57; Peter Harvey, *The Selfless Mind: Personality, Consciousness and Nirvana in Early Buddhism*(Richmond: Curzon Press, 2004), p.139; Bhikkhu Bodhi, *A Comprehensive Manual of Abhidhamma*(Kandy: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2010), pp.81-82; 대림스님·각목스님, 『아비담마 길라잡이 1』(울산: 초기불전연구원, 2017), pp.235-238.

위따까와 위짜라의 용어규정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 심소법을 비롯한 아비담마 용어의 적절한 명칭을 확정하는 작업 자체도 아비담마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유의미한 논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목적은 심소법의 명칭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므로, 바왕가 논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위따까와 위짜라를 비롯한 이후 모든 심소법들을 간략한 한역용어로 지칭할 것이다.

한편, Dhs는 尋·伺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그 때의 ‘尋’이란 무엇인가? 그 때의 사색(takka), 尋(vitakka), 사유(saṅkappa), 몰두(appanā), 몰입(vi-appanā), 마음의 적용(cetaso abhiniropanā), 正思惟(sammāsaṅkappa) - 이것이 그 때의 尋이다.

그 때의 ‘伺’란 무엇인가? 그 때의 관찰(cāra), 伺(vicāra), 사고(anuvicāra), 思念(upavicāra), 마음의 귀속(cittassa anusandhanatā), 집중(anupekkhanatā) - 이것이 그 때의 伺이다.¹²⁾

이러한 Dhs의 거친 개념규정을 바탕으로 이후 주석 및 아비담마 전통은 이들을 보다 체계적인 범주 속에서 재구성한다. 후대 아비담마 전통에서 尋과 伺는 6개의 빠깁나까(pakiṇṇaka)에 속한다. 미즈노 고젠(水野弘元)이 雜心所로 번역한 이 일군의 심소법들은 비록 모든 심법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심법과 함께 일어난다. 이러한 의미를 살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빠깁나까를 ‘때때로들’로 번역했다.¹³⁾

바왕가 용례에서 함께 언급되고 있는 또 다른 심소법들은 毗毗(pīti), 수카(sukha), 우뻑카(upekkhā)의 조합이다. 이들 중 pīti는 ‘기쁘다(to please)’ 혹은 ‘만족하다(to satisfy)’ 등을 의미하는 9류 동사어근 √prī에서 파생한 pīti의 빠

12) katamo tasmim̐ samaye vitakko hoti? yo tasmim̐ samaye takko vitakko saṅkappo appanāvvyappanā cetaso abhiniropanā sammāsaṅkappo - ayaṃ tasmim̐ samaye vitakko hoti. katamo tasmim̐ samaye vicāro hoti? yo tasmim̐ samaye cāro vicāro anuvicāro upavicāro cittassa anusandhanatā anupekkhanatā - ayaṃ tasmim̐ samaye vicāro hoti. Dhammasaṅgaṇi p.10.

13) vitakko, vicāro, adhimokkho, vīriyaṃ, pīti, chando cā ti cha ime cetasikā pakiṇṇakā nāma. Abhidhammattha Saṅgaha 2.3; パーリ語辭典 p.375; 대림스님·각목스님, 앞의 책, pp.234-235.

알리 형태이며, 한역어 喜로 정착된 전문용어이다.¹⁴⁾ 단, 이 때 pīti는 受 정형구 항목인 증성명사 somanassa와 서로 다른 심소법이라는 점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비록 이 두 심소법은 한역어 喜로 동일하게 번역되었지만, 전자는 行蘊에 해당되고 후자는 受蘊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단원에서 <喜 3묵음>를 설명하며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upekkhā는 1류 동사어근 √īkṣ가 접두어 upa와 결합된 형태(√upekṣ)로서, upekṣā의 빠알리 형태이며, 종종 upekhā로도 쓰인다. ‘위에서(upa) 내려다본다(√īkṣ)’는 기본 의미를 가지며, 이것이 확장되어 ‘평온함’을 뜻하는 용어로 정착되었고,¹⁵⁾ 捨로 한역된다. 捨는 樂(sukha)과 함께 受(vedanā) 정형구인 苦受·樂受·不苦不樂受에서 비롯된 용어들이다. 초기문헌에서 受는 경우에 따라 3가지와 5가지로 서로 다르게 분류되지만, 니까야 문구를 통해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나 차이점 등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는다.¹⁶⁾ 초기문헌의 이러한 혼용은 아비담마 제2논서인 『위방가(Vibhaṅga)』에 이르러 체계적으로 정리된다. 『위방가』는 법수에 따라 총 10가지로 受를 분석하고 있는데, 그 중 <법수5>를 통해 受는 樂根(sukhindriya), 苦根(dukkhindriya), 喜根(somanassindriya), 憂根(domanassindriya), 捨根(upekhindriya)로 분석된다. 여기서 앞의 2개 항목은 물질적 고락을, 그 다음 2개 항목은 정신적 고락을 의미한다. 이처럼 아비담마 전통은 기존의 苦와 樂을 물질적 측면(樂, 苦)과 정신적 측면(喜, 憂)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후,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상태인 不苦不樂을 捨로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다.¹⁷⁾

2. 마띠까(mātika)

구전전통에서 목록은 암기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14) Apte pp.1136-1137.

15) Apte pp.474.

16) sukhindriyam dukkhindriyam somanassindriyam domanassindriyam upekhindriyam. Saṃyutta Nikāya V p.207.

17) PED p.150; Apte p.391; Vibhaṅga p.15; 대립스님·각목스님, 앞의 책, p.133-134.

특히 불교문헌들은 다양한 목록을 바탕으로 난해한 교리체계를 정립해왔다. 교리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목록의 형태는 경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5온-12처-18계와 주로 논장에서 발견되는 (예컨대 선-불선-무기와 같은) 3무음 목록이다.

이들 중 테라와다 아비담마에서 사용되는 3/2무음 목록을 ‘아비담마 마띠까 (Abhidhamma Mātikā, 論母)’라 부른다. 이 목록은 Dhs 서두에 첨부되어 있기에 ‘Dhs 마띠까’라고도 불린다.¹⁸⁾ 그러나 아비담마 칠론의 전체 구성을 감안했을 때, 이 마띠까들은 Dhs에 수록된 것이라기보다는, 논장 도입부에 제시된 목록으로서 논장 전체에 적용되는 주요개념 목록들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실제로 Dhs 뿐만 아니라 『위방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아비담마 논서들에서 이 마띠까의 항목들이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아비담마 칠론들 중에서도 제1논서인 Dhs와 제7논서인 Patt는 이 아비담마 마띠까를 중심 주제로 다룬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기존에 사용되어온 ‘Dhs 마띠까’라는 명칭을 따를 것이다.

<善 3무음> 즉, 善(kusala)-不善(akusala)-無記(avyākata)로 시작하는 Dhs 마띠까는 다양한 法들을 3무음(tika)과 2무음(duka)으로 분류한다.¹⁹⁾ 앞서 살펴본 다섯 가지 심소법들은 3무음에 포함되는데, 尋(vitakka)과 伺(vicāra)는 <尋 3무음(vitakkattika)>에, 喜(pīti)와 樂(sukha), 그리고 捨(upekkhā)는 <喜 3무음(pīttitika)>

18) 최초로 마띠까의 기원과 전개를 분석했던 와더(A.K. Wader)는 특정 목록이 점차 발전단계를 거쳐 Dhs 마띠까로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게틴(Rupert Gethin)은 마띠까들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개되었기에, 이들 간의 연대기적 선후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게틴(Rupert Gethin)은 새로운 목록을 생성시키는 목록들의 목록들을 ‘합성목록(composite lists)’이라 칭했고, 프라우발너(Erich Frauwallner)는 이를 ‘속성 마띠까(attribute-mattika)’로 규정했다. A.K. Warder, *The Mātikā*, pp.xix-xxvii, ed. by A.P. Buddhadatta Mahāthera, Mohavicchedanī, Abhidhammamātikathavaṇṇanā(London: Pali Text Society, 1961), p.xx.; Rupert Gethin, *The Mātikās: Memorization, Mindfulness, and the List*, ed. by Gyatso, Janet, *In the Mirror of Memory, Reflections on Mindfulness and Remembrance in Indian and Tibetan Buddhism*, New York: SUNY, 1992), pp.162-164; Erich Frauwallner, *Studies in Abhidharma Literature and the Origins of Buddhist Philosophical Systems*(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5), pp.5-6.

19) 논자는 앞서 마띠까 tika와 duka를 각각 ‘3개조’와 ‘2개조’로 표현했다. 그러나 이후 연구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개조’보다는 ‘무음’이라는 표현이 좀 더 의미를 부각시키고 자연스럽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논문에서부터는 ‘개조’가 아닌 ‘무음’으로 표현법을 수정했음을 밝힌다.

에 각각 해당된다.

먼저 尋과 伺는 Dhs 마따까 중 <尋 3 무음>을 통해 有尋有伺(savitakkasavicāra), 無尋唯伺(avitakkavicāramattā), 無尋無伺(avitakka-avicāra)로 조합되어 있다. 본문에서 ①~⑥ 용례들을 통해 확인하겠지만, Patt는 <尋 3 무음> 중에서 無尋唯伺와 無尋無伺만을 바왕가에 적용시키고 있다. Dhs는 이들 두 가지 조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색계와 출세간의 無尋唯伺 경지에서, 伺를 제외하고, 그 [심이 발생하는 데] 관련된 수[·상·행]·식은. 이들이 無尋唯伺法이다. 욕계와 색계, 무색계, 그리고 출세간의 無尋無伺 경지에서, 수[·상·행]·식은, 모든 색, 무위계 - 이 법들이 無尋無伺이다.²⁰⁾

無尋唯伺의 경지에서 伺는 단순히 無尋唯伺+法의 발생과 ‘관련된(sampayutta)’ 심소법이 아니라, 그 자체로 주된 요인 (혹은 이미 갖추어진 심소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Dhs는 ‘vicāraṃ ṭhapetvā’라는 표현을 통해 伺를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에 따르면, 무심유사는 색계와 출세간의 심법을, 무심무사는 삼계와 출세간의 모든 심법은 물론 색법까지도 동반하는 심소법인 것이다. Patt는 바로 이러한 무심유사와 무심무사를 바왕가와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한편, Dhs 마따까 중 <喜 3 무음>은 ‘sahagata(~과 함께 하는)’라는 단어와 함께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喜俱(pītisahagatā) 樂俱(sukhasahagatā), 捨俱(upekkhāsahagatā). 樂과 捨는 모든 종류의 심발생과 함께 발생하는 심소법인 受에 해당하는데, 앞서 확인했듯 여기서 樂은 락수, 捨는 불고불락수에 각각 해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Dhs는 아래와 같이 <喜 3 무음>의 항목들을 해석한다.

20) avitakkavicāramattabhūmiyaṃ rūpāvacare aparīyāpanne vicāraṃ ṭhapetvā taṃ sampayutto vedanākkhandho ... pe ... viññāṇakkhandho - ime dhammā avitakkavicāramattā. avitakka-avicārabhūmiyaṃ kāmāvacare rūpāvacare arūpāvacare aparīyāpanne vedanākkhandho ... pe... viññāṇakkhandho - sabbaṃ ca rūpaṃ asaṅkhatā ca dhātu - ime dhammā avitakka-avicārā. Dhammasaṅgaṇī p.182.

그 때의 ‘喜’란 무엇인가? 그 때의 喜(pīti), 환희(pāmojja), 기쁨(āmodanā), 만족(pamodanā) 미소(hāsa), 기쁜 미소(pahāsa), 행복(vitti), 의기양양(odagya), 심적 만족(attamanatā cittassa) - 이것이 그 때의 喜이다.²¹⁾

그 때의 ‘樂’이란 무엇인가? 그 때의 심적 유쾌함(cetasika sāta), 심적 즐거움(cetasika sukha), 심적 접촉에서 생긴 유쾌하고 즐겁게 느껴진 것(cetosamphassaja sāta sukha vedayita), 심적 접촉에서 생긴 유쾌하고 즐거운 느낌(cetosamphassajā sātā sukhā vedanā) - 이것이 그 때의 樂이다.²²⁾

그 때의 ‘捨’란 무엇인가? 그 때의 심적인 만족도 아니고 불만족도 아닌 것(cetsikaṃ neva sātamaṃ nāsātamaṃ), 심적 접촉에서 생긴 불고불락으로 느껴진 것(cetosamphassaja adukkhamasukha vedayita), 심적 접촉에서 생긴 불고불락수(cetosamphassajā adukkhamasukhā vedanā) - 이것이 그 때의 捨이다.²³⁾

喜는 모든 종류의 心과 결합하지 않는 심소법이기에, Dhs는 <喜 3 묶음> 따미까를 통해 그 경우의 수를 구분하고 있다.²⁴⁾ 오온의 분류로 본다면, 尋, 伺, 喜는 行蘊에 해당하고, 樂과 捨는 受蘊에 해당한다.²⁵⁾ 심소법을 기준으로 할 경우, 尋

21) katamā tasmim samaye pīti hoti? yā tasmim samaye pīti pāmojjaṃ āmodanā pamodanā hāso pahāso vitti odagyaṃ attamanatā cittassa - ayaṃ tasmim samaye pīti hoti. Dhammasaṅgaṇi p.10.

22) katamaṃ tasmim samaye sukhaṃ hoti? yaṃ tasmim samaye cetasikaṃ sātamaṃ cetasikaṃ sukhaṃ cetosamphassajamaṃ sātamaṃ sukhaṃ vedayitaṃ cetosamphassajā sātā sukhā vedanā - idaṃ tasmim samaye sukhaṃ hoti. Dhammasaṅgaṇi p.10.

23) katamā tasmim samaye upekkhā hoti? yaṃ tasmim samaye cetsikaṃ neva sātamaṃ nāsātamaṃ cetosamphassajamaṃ adukkhamasukhaṃ vedayitaṃ cetosamphassajā adukkhamasukhā vedanā - ayaṃ tasmim samaye upekkhā hoti. Dhammasaṅgaṇi p.28.

24) 주석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捨란 不苦不樂受라고 말해진다. 왜냐하면 [捨]는 樂이나 苦의 상태의 지속을 [철저히 무관심하게] 외면하고, [樂이나 苦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 상태를 확립하며, 이 상태로 지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受 3 묶음’으로부터 [不苦不樂受(adukkhamasukhā vedanā)라는] 2개의 문구만을 취하여 ‘喜가 결합된 樂’과 ‘喜를 지닌 樂’ 간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여기에 3 묶음이 언급되었다(upekkhā ti c’ettha adukkhamasukhā vedanā vuttā. sā hi sukhadukkḥākārappavattim upekkhāti, majjhattākārasaṅṅhitattā tenākārena ca pavattati ti upekkhā. iti vedanātikato padadvayam eva gahetvā nippītika-sukhassa sappītikasukhato visesadassanavasena ayaṃ tiko vutto).” Atthasālinī p.43.

25) 후대 아비담마 전통에서는 upekkhā와 유사한 심소법으로서 tatra majjhataṭṭā라는 항목을 정립하고

과 伺, 그리고 喜는 대부분의 심발생에 관여(pakiṇṇaka)하는 심소법이다. 반면, 樂과 捨는 모든 심발생에 언제나 참여(sabbacittasādhāraṇa)하는 심소법으로서, 북방 아비달마에서는 이를 ‘변행심소(遍行心所)’라 규정했다. 더 나아가 Dhs는 앞서 살펴본 尋·伺, 그리고 여기 언급된 喜·樂·捨에 心一境(ekaggatā)을 포함시켜 禪(jhāna)을 구성하는 요소로 규정한 뒤,²⁶⁾ 이들을 기준으로 四種禪과 五種禪을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서 捨는 사중선의 第四禪, 혹은 오중선의 第五禪에만 적용되는 심소법이다.

Dhs와 Patt는 이처럼 심소법에 대한 명확한 분류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논자가 인용한 두 논서의 문구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 Dhs와 Patt의 논의방식은 거칠고 장황하여 그 전체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단점²⁷⁾은 CE 5세기 이후 제작된 주석서들과 후대 논서들을 통해 보완되는데, 바왕가의 논의 또한 이러한 텍스트의 발전단계에 맞추어 더욱 정교하게 완성된다.

이제부터 살펴볼 Patt 제2권의 바왕가 용례들은 바왕가가 어떠한 심소법들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Patt 이전의 빠알리 문헌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이러한 특징들은, Patt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된 심법의 유형으로 바왕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있는데, 이는 수온이 아닌 행온에 해당한다. 그러나 Dhs와 Patt의 문맥상의 의미, 그리고 주석전통의 해석을 감안했을 때, 여기서 언급된 upekkhā는 不苦不樂受에 해당하는 受蘊에 포함된다.

26) “그때의 다섯 가지로 구성된 선이란 무엇인가? 尋, 伺, 喜, 樂, 心一境이다(katamaṃ tasmim samaye pañcaṅgikaṃ jhānaṃ hoti? vitakko, vicāro, pīti, sukhaṃ, cittass’ ekaggatā).” Dhammasaṅgaṇi p.20.

27) 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익명의 심사자를 통해, 이는 단점이 아닌 아비달마의 특수성 - 위빠사나 수행자의 분석적 통찰을 직관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지적받았다. 이는 향후 진행될 논자의 바왕가 논의에 중요한 전제로 작용할 것이다. 이 각주를 통해 심사자의 가르침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III. 심소법과의 결합: 용례 ①~⑱

1. vitakka-vicāra와의 결합: 용례 ①~⑥

Patt는 尋(vitakka)과 伺(vicāra)를 바왕가와 함께 일어나는 심소법으로 지목하며, 아래와 같이 바왕가와와의 관련성을 서술한다.

① 無尋唯伺 바왕가는 전향에게 무간연으로 조건이 된다.

(avitakkavicāramattaṃ bhavaṅgaṃ āvajjanāya anantarapaccayena paccayo. p.32)

② 無尋唯伺 바왕가는 전향과 尋에게 무간연으로 조건이 된다.

(avitakkavicāramattaṃ bhavaṅgaṃ āvajjanāya vitakkassa ca anantarapaccayena paccayo. p.33)

③ 無尋無伺 바왕가와 伺는 전향에게 무간연으로 조건이 된다.

(avitakka-avicāraṃ bhavaṅgaṃ vicāro ca āvajjanāya anantarapaccayena paccayo. p.33)

④ 無尋無伺 바왕가와 伺는 전향과 尋에게 무간연으로 조건이 된다.

(avitakka-avicāraṃ bhavaṅgaṃ ca vicāro ca āvajjanāya vitakkassa ca anantarapaccayena paccayo. p.33)

⑤ 無尋唯伺 바왕가와 伺는 전향에게 무간연으로 조건이 된다.

(avitakkavicāramattaṃ bhavaṅgaṃ ca vicāro ca āvajjanāya anantarapaccayena paccayo. p.33)

⑥ 無尋唯伺 바왕가와 伺는 전향과 尋에게 무간연으로 조건이 된다.

(avitakkavicāramattaṃ bhavaṅgaṃ ca vicāro ca āvajjanāya vitakkassa ca anantarapaccayena paccayo. p.34)

Patt 제2권의 첫 번째 바왕가 용례에 적용되는 ‘명제’와 ‘예시’는 아래와 같다.²⁸⁾

명제: “無尋唯伺法은 有尋有伺法에게 무간연으로 조건이 된다.”

(avitakkavicāramatto dhammo savitakkasavicārassa dhammassa anantarapaccayena paccayo. p.32)

예시: “無尋唯伺-죽음심은 有尋有伺-재생심에게 무간연으로 조건이 된다.”

(avitakkavicāramattaṃ cuticittaṃ savitakkasavicārassa upapatticcittassa anantarapaccayena paccayo. p.32)

먼저 용례 ①과 ②는 ‘無尋唯伺(avitakkavicāramattā)+법’이라는 동일한 ‘조건 짓는 법’을 상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죽음심과 바왕가가 적용 가능하다. 그리고 이 ‘조건 짓는 법’들은 무간연을 조건으로 ‘有尋有伺(savitakkasavicārā)+법’이라는 동일한 ‘조건 지어진 법’을 이끈다. 여기에는 각각 재생심과 尋, 그리고 전향이 적용된다. 바왕가가 전향에게 무간연으로 조건이 된다는 점은 이미 Patt 제1권의 용례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위에서 볼 수 있듯, 이 대전제는 제2권의 용례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용례 ③과 ④의 ‘조건 짓는 법’은 ‘無尋無伺(avitakka-avicārā)+법’이고, 죽음심과 죽음심-伺의 조합이 여기에 적용된다. Patt 제1권의 용례와 마찬가지로 죽음심은 바왕가와 동일한 심법이므로 바왕가의 용례에서는 죽음심을 대신하여 바왕가가 언급된다.²⁹⁾ 이들의 ‘조건 지어진 법’에는 ‘有尋有伺(savitakkasavicārā)+

28) 본 논문에서 언급할 ‘명제’란 해당 논의 속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기본명제를 의미하고, ‘예시’란 기본명제에 속한 다양한 예시들 중 바왕가와 관련된 문구들을 지칭하며, ‘바왕가’란 예시들 중 bhavaṅga라는 표현이 직접 언급된 문구들을 뜻한다. 이러한 표현과 용법에 대해서는 김경래, 앞의 논문(2017), p.211-218 참고.

29) Patt 제1권에 언급된 바왕가와 cuticitta 및 upapatticitta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경래, 앞의 논문(2017), p.216 참고.

법’과 ‘有尋有伺-無尋唯伺(avitakkavicāramattā)+법’의 조합이 적용된다.

용례 ⑤와 ⑥은 無尋唯伺-無尋無伺의 조합을 ‘조건 짓는 법’으로 가지고, 죽음심-伺의 조합이 예시로 언급된다. ‘조건 지어진 법’으로는 ‘有尋有伺+법’과 ‘有尋有伺-無尋唯伺+법’ 조합이 적용되며 재생심과 재생심-尋의 조합이 예시로 등장한다.

Patt는 이처럼 심법과 심소법의 조합, 그리고 그들 간의 조건을 빠짐없이 나열하고 있지만, 거듭 반복되는 나열식 서술 패턴은 텍스트의 가독성을 떨어지고 논서의 체계 또한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논의를 간결하게 정리하기 위해 바왕가의 용법에만 초점을 맞추어 Patt 문구들을 단순화 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尋 3묶음>에 언급된 바왕가 용례와 관련된 항목들은 총 3가지이며, 이들을 기호화 시켜 A(無尋唯伺+법), B(有尋有伺+법), C(無尋無伺+법)로 대치하면 아래의 <표 1>과 같이 전체 논의가 파악된다.

<표 1> 용례①~⑥의 명제구조

용례	①	②	③	④	⑤	⑥
명제	A→B	A→BA	C→B	C→BA	AC→B	AC→BA

이들은 ‘조건 짓는 법(paccaya-dhamma, 緣法)’을 중심으로 A와 C, 그리고 AC로 각각 두 용례씩 짝을 이루며, ‘조건 지어진 법(paccayuppanna-dhamma, 緣所生法)’은 B와 BA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³⁰⁾ 그리고 Patt 제1권의 용례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용례들은 ‘무간연(anantara-paccaya, 無間緣)’을 조건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간략한 구조 속에서 바왕가의 예시들은 죽음심과 재생심, 그리고 심-사의 조합을 통해 열거되고 있는 것이다. 6가지 용례들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0) 여기 언급된 ‘조건 짓는 법(paccaya-dhamma, 緣法)’, ‘조건 지어진 법(paccayuppanna-dhamma, 緣所生法)’, 그리고 ‘무간연(anantara-paccaya, 無間緣)’ 등에 대해서는 김경래, 앞의 논문(2017), pp.206-210 참고.

〈표 2〉 용례 ①~⑥ 정리

용례	①	②
緣	무간연	
명제	無尋唯伺法 → 有尋有伺法	無尋唯伺法 → 有尋有伺法 & 無尋唯伺法
예시	無尋唯伺-죽음심 → 有尋有伺-재생심	無尋唯伺-죽음심 → 有尋有伺-재생심 & 尋
바왕가	無尋唯伺-바왕가 → 전향	無尋唯伺-바왕가 → 전향 & 尋
용례	③	④
緣	무간연	
명제	無尋無伺法 → 有尋有伺法	無尋無伺法 → 有尋有伺法 & 無尋唯伺法
예시	無尋無伺-죽음심 → 有尋有伺-재생심	無尋無伺-죽음심 & 伺 → 有尋有伺-재생심 & 尋
바왕가	無尋無伺-바왕가 → 전향 & 伺	無尋無伺-바왕가 & 伺 → 전향 & 尋
용례	⑤	⑥
緣	무간연	
명제	無尋唯伺法 & 無尋無伺法 → 有尋有伺法	無尋唯伺法 & 無尋無伺法 → 有尋有伺法 & 無尋唯伺法
예시	無尋唯伺-죽음심 & 伺 → 有尋有伺-재생심	無尋唯伺-죽음심 & 伺 → 有尋有伺-재생심 & 尋
바왕가	無尋唯伺-바왕가 & 伺 → 전향	無尋唯伺-바왕가 & 伺 → 전향 & 尋

이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여타의 다른 용례들과 달리 바왕가 용례 ①~⑥은 해당 명제 및 예시에 적용되지 않는다. (앞선 논문에서 다른 Patt 제1권의 용례들을 비롯하여, 다음 장에서 다룰 Patt 제2권의 용례 ⑦~⑰은 모두 해당 ‘명제’ 및 ‘예시’에 정확히 적용된다.) 위의 대조표를 감안한다면, ‘전향(āvajjana)’은 有尋有伺(용례 ①과 ⑤)와 모종의 관련성을 지녀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Dhs와 Patt의 정보만으로는 전향과 有尋有伺 간의 관계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특이한 구조에 대한 분석과 그 함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차후 연구과제로 미루고, 이제부터는 나머지 용례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2. pīti와 sukha, 그리고 upekkhā와의 결합: 용례 ~⑰

Patt는 Dhs의 <喜 3묶음>을 차용하여 아래와 같이 바왕가를 언급한다.

⑦ 희를 수반한 바왕가는 전향에게 무간연으로 조건이 된다.
(pītisahagataṃ bhavaṅgaṃ āvajjanāya anantarapaccayena paccayo. p.72)

⑧~⑨ 희를 수반한 바왕가는捨를 수반한 바왕가에게 무간연으로 조건이 된다.
(pītisahagataṃ bhavaṅgaṃ upekkhāsahagatassa bhavaṅgassa anantarapaccayena paccayo. p.72)

⑩ 樂을 수반한 바왕가는 전향에게 무간연으로 조건이 된다.
(sukhasahagataṃ bhavaṅgaṃ āvajjanāya anantarapaccayena paccayo. p.72)

⑪~⑫ 樂을 수반한 바왕가는捨를 수반한 바왕가에게 무간연으로 조건이 된다.
(sukhasahagataṃ bhavaṅgaṃ upekkhāsahagatassa bhavaṅgassa anantarapaccayena paccayo. p.72)

⑬~⑭捨를 수반한 바왕가는 희를 수반한 바왕가에게 [무간연으로 조건이 된다.]
(upekkhāsahagataṃ bhavaṅgaṃ pītisahagatassa bhavaṅgassa… p.73)

⑮~⑰ 희를 수반하고 락을 수반한 바왕가는 전향에게 [무간연으로 조건이 된다 …] 희를 수반하고 락을 수반한 바왕가는捨를 수반한 바왕가에게 [무간연으로 조건이 된다.]
(pītisahagatañ ca sukhasahagatañ ca bhavaṅgaṃ āvajjanāya …pe… pītisahagatañ ca sukhasahagatañ ca bhavaṅgaṃ upekkhāsahagatassa bhavaṅgassa …pe… anantarapaccayena paccayo. p.73)

용례 ⑦~⑨의 명제는 “희를 수반한 법은捨를 수반한 법에게 무간연으로 조건이 된다(pītisahagato dhammo upekkhāsahagatassa dhammassa anantarapaccayena paccayo. p.72)”이다. 그리고 이어서 각각 두 개의 예시가 다음과 같이 나열된다.

예시1: “희를 수반한 죽음심은捨를 수반한 재생심에게 무간연으로 조건이 된다.”

(pīṭisahagataṃ cuticittaṃ upekkhāsaḥagatassa upapatticittassa anantarapaccayena paccayo. p.72)

예시2: “희를 수반한 이숙-의식계는 작-의식계에게 무간연으로 조건이 된다.”

(pīṭisahagatā vipākamanoviññāḍadhātu kiriyamanoviññāḍadhātuyā anantarapaccayena paccayo. p.72)

위의 예시1은 바왕가 용례 ⑧~⑨와 상응한다. 즉, pīṭisahagataṃ cuticittaṃ upekkhāsaḥagatassa upapatticittassa라는 예시1의 문구는 용례 ⑧~⑨의 pīṭisahagataṃ bhavaṅgaṃ upekkhāsaḥagatassa bhavaṅgassa라는 문구에 적용되는데, 이 상응관계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 3〉 용례 ⑧~⑨과 해당 예시 간의 상응관계

문구	조건 짓는 법		조건 지어진 법	
	심소법	심법	심소법	심법
예시1	pīṭisahagataṃ	cuticittaṃ	upekkhāsaḥagatassa	upapatticittassa
용례 ⑧~⑨		bhavaṅgaṃ		bhavaṅgassa

물론 위의 문구만으로는 Patt 전5권을 관통하는 바왕가 논의, 예컨대 특정 심소법과의 구체적인 결합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앞서 거듭 확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위의 상응을 통해 Patt가 죽음심(cuticitta)과 재생심(upapatticitta)을 바왕가와 동일한 심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후대 논서들에서 발견되는 바왕가의 개념규정이 Patt 논의 속에 이미 정립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예시2는 용례 ⑦에 상응한다. 후대 아비담마 논서들에 따르면, 바왕가는 요소(dhātu, 界)의 측면에서 意識界(manoviññāḍadhātu)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향은

인식의 통로(dvāra, 門)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界로 규정된다. 즉, 五門전향(pañca-dvāra-āvajjana)은 意界(manodhātu)에 속하는 반면, 意門전향(mano-dvāra-āvajjana)은 바왕가와 마찬가지로 의식계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바왕가는 善(kusala)·不善(akusala)으로 구분할 수 없는 無記(avyākata) 중 결과로 나타난 것, 즉 異熟(vipāka)에 해당한다면, 전향은 같은 무기법이지만 작용만 하는 作(kiriya)에 해당한다.³¹⁾ 따라서 作-意識界에 상응하는 용례⑦의 전향은 오문전향이 아닌 의문전향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앞서 검토했던 Patt 제1권의 용례 ①~③과 유사하며,³²⁾ Patt 제2권의 용례 ⑩~⑫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용례 ⑩~⑫의 명제와 예시는 아래와 같다.

명제: “樂을 수반한 법은捨를 수반한 법에게 무간연으로 조건이 된다.”
(sukhasahagato dhammo upekkhāsahagatassa dhammassa anantarapaccayena paccayo. p.72)

예시1: “樂을 수반한 죽음심은捨를 수반한 재생심에게 무간연으로 조건이 된다.”
(sukhasahagataṃ cuticcitaṃ upekkhāsahagatassa upapatticcittassa anantarapaccayena paccayo. p.72)

예시2: “樂을 수반한 이숙-의식계는 작-의식계에게 무간연으로 조건이 된다.”
(sukhasahagatā vipākamanoviññādhātu kiriyamanoviññādhātuyā anantarapaccayena paccayo. p.72)

위의 예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이들은 흠 대신 樂이 제시된 것을 제외하면 용례 ⑧~⑨와 동일한 형태로 바왕가에 대한 명제와 예시를 언급하고 있다.

31) 門에 따라 서로 다른 界로 구분되는 전향에 대해서는 Visuddhimagga 14.115-116와 Bodhi, *op. cit.*, p.146의 Table 3.7 참고.

32) 김경래, 앞의 논문, pp.212-215.

명제: “捨를 수반한 法은 喜를 수반한 法에게 무간연으로 조건이 된다.”
(upekkhāsahagato dhammo pītisahagatassa dhammassa anantarapaccayena paccayo. p.73)

예시: “捨를 수반한 죽음심은 喜를 수반한 재생심에게 [무간연으로 조건이 된다.]”
(upekkhāsahagataṃ cuticittaṃ pītisahagatassa upapatticittassa. p.73)

용례 ⑬~⑭의 명제에 적용되는 첫 번째 예시는 죽음심과 재생심이다. 이들은 바왕가와 동일한 심법이므로 결국 위의 예시와 용례 ⑬~⑭ 역시 동일한 형태로 서로 상응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이어지는 용례 ⑮~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명제: “희를 수반하고 락을 수반한 법들은 희를 수반한 법에게 [무간연으로 조건이 되고,] 락을 수반한 법에게 [무간연으로 조건이 되며,] 사를 수반한 법에게 무간연으로 조건이 된다.”
(pītisahagato ca sukhasahagato ca dhammā pītisahagatassa dhammassa …p e… sukhasahagatassa dhammassa …pe… upekkhāsahagatassa dhammassa anantarapaccayena paccayo. p.73)

예시1: “희를 수반하고 락을 수반한 죽음심은 捨를 수반한 재생심에게 [무간연으로 조건이 된다.]”
(pītisahagatañca sukhasahagatañca cuticittaṃ upekkhāsahagatassa upapatticittassa. p.73)

예시2: “희를 수반하고 락을 수반한 이숙-의식계는 작-의식계에게 무간연으로 조건이 된다.”
(pītisahagatā ca sukhasahagatā ca vipākamanoviññāṇadhātu kiriyamanoviññāṇadhātuyā anantarapaccayena paccayo. p.73)

위에 언급된 바왕가 용례 ⑮~⑰의 명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개별명제를 조합한 것이다.

- (1) 喜+樂+法 → 喜+法
- (2) 喜+樂+法 → 樂+法
- (3) 喜+樂+法 → 捨+法

여기서 바왕가의 용례는 모두 (3)번 명제에 해당된다. 앞 단원에서 이미 살펴보았듯, 捨는 정신적·육체적인 느낌 - 樂(sukha), 苦(dukkha), 喜(somanassa), 憂(domanassa) -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Patt 제2권은 이러한 捨를 수반하는 心法으로 재생심과 작-의식계를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살펴보았듯, 전자는 바왕가에, 후자는 전향에 해당한다.

이상 Patt 제2권에서 발견되는 17가지 용례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Patt는 조합 가능한 모든 경우의 법들을 열거한 논서로서, 거칠고 장황한 설명과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언급한 용례들만으로 바왕가의 특징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본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바왕가가 색계선의 구성요소들과 결합 가능한 심법이라는 것이다. 결론을 통해 이를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IV. 결론

Patt 제2권에는 총 33개의 바왕가 용례들이 발견된다. 이들 중 본 논문에서 검토한 17가지 용례들은 Dhs 마따까 <尋 3목록>과 <喜 3목록>을 구성하는 심소법 尋, 伺, 喜, 樂, 捨를 바왕가와 결합시키고 있다. Dhs는 이 항목들을 ‘禪의 구성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Patt는 이러한 규정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논의를 전개했다.

〈표 4〉 『뺏타나』 제2권의 바왕가 용례 ①~⑰ 정리³³⁾

용례	방법 (naya)	상호관련 (paṭṭhāna)	章 (vāra)	緣 (paccaya)	결합심소	조건 지어진 법 (paccayuppanna)	바왕가		
①	공정 (anuloma)	尋 3개조	조사 (pañhā)	無間緣 (anantara)	伺	전향	죽음심		
②					伺	전향&尋	죽음심		
③					-	전향	죽음심		
④					-	전향&尋	죽음심		
⑤					-	전향	죽음심		
⑥					-	전향&尋	죽음심		
⑦		喜 3개조			喜	의문전향	이속-의식계		
⑧					喜, 捨	捨+바왕가	죽음심, 재생심		
⑨						樂	의문전향	이속-의식계	
⑩					樂, 捨	捨+바왕가	죽음심, 재생심		
⑪						捨, 喜	喜+바왕가	죽음심, 재생심	
⑫							喜樂, 捨	전향, 捨+바왕가	죽음심, 재생심
⑬									
⑭									
⑮									
⑯									
⑰									

우선 바왕가는 전향 혹은 자신과 동일한 바왕가를 이끈다. 즉, ‘조건 짓는 법’으로서 바왕가는 ‘조건 지어진 법’으로서 전향과 또 다른 바왕가를 지닌다. 이때 ‘조건 짓는 법’(즉, 바왕가)는 ‘조건 지어진 법’들에게 언제나 무간연으로 조건이 된다. 이러한 바왕가는 죽음심이나 재생심과 동일한 심법이며, 요소적 측면에서 異熟-意識界로 규정된다. 이와 같은 특징은 이미 Patt 제1권의 용례에서도 확인된 것들이다. 더 나아가 Patt 제2권의 용례들은 바왕가가 심소법들 중 伺, 喜, 樂, 捨 등과 함께 일어날 수 있음(①~②, ⑦~⑰)을 시사한다. 이 때, 바왕가가 발생하는 영역은 삼계(욕계-색계-무색계)는 물론 출세간도 포함될 수 있

33) 방법(naya), 상호관련(paṭṭhāna), 章(vāra), 緣(paccaya) 등의 의미와 용법에 대해서는 김경래, 앞의 논문, pp.203-206 참고.

으며(①~⑥; Dhs p.182), 특히 선의 구성요소들을 수반하기에 색계 사중선(혹은 오중선) 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①~⑱).

Dhs가 규정한 ‘선의 구성요소’들 중 Patt 제2권이 바왕가와 결합시킨 요소들은 伺, 喜, 樂, 捨 뿐이다. 이는 향후 인식과정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바왕가가 개입된 오문인식과정과 의문인식과정을 위한 중요한 전제를 마련해준다. 더불어 후대 아비담마에 이르러 82법으로 분석된 심법들 중 바왕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법들인 19가지(19, 27, 39, 40, 41, 42, 43, 44, 45, 46, 60, 61, 62, 63, 64, 74, 75, 76, 77)³⁴⁾가 어떠한 심소법들과 함께 발생하는지에 대한 논의로도 확장된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주석서에서 발견되는 바왕가 용례들을 통해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34) 바왕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법들의 번호는 대림스님·각묵스님, 앞의 책, p.206의 <도표 1.12> ‘상좌부의 89/121가지 마음’ 참고.

참고문헌

1. 원전류(사전포함)

- *Abhidhammattha Saṅgaha*, ed. by B. Bodhi, *A Comprehensive Manual of Abhidhamma*. Kandy,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2010.
- *Atthasālinī*, ed. by E. Müller, London, Pali Text Society, 1979; Pe Maung Tin, *The Expositor (Atthasālinī)* Vols. I, II,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976.
- Apte: <http://dsal.uchicago.edu/dictionaries/apte/> 검색: 2018년 4월 5일
- Dhs: *Dhammasaṅgaṇi*, ed. by E. Müller,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978; 각목스님, 『담마상가니』 1/2권,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2016.
- *Majjhima-Nikāya*, Vol. I, ed. by V. Trenckner,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979.
- Patt: *Paṭṭhāna*, http://patthana.net/?page_id=36 검색: 2018년 4월 5일; U Nārada, *Conditional Relations (Paṭṭhāna) Vol. II*, Bristol, The Pali Text Society, 2011.
- PED: <http://dsal.uchicago.edu/dictionaries/pali/> 검색: 2018년 4월 5일
- *Samyutta-Nikāya*, Vol. II~V, ed. by M. Léon Feer, Oxford, Pali Text Society, 1989(II), 1975(III), 1990(IV), 1976(V).
- *Vibhaṅga*, ed. by Mrs. Rhys Davids,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978.
- *Visuddhimagga*, ed. by H.C. Warren, revised D. Kosambi,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Harvard Oriental Studies, 1950.
- パーリ語辞典: <http://palidictionary.appspot.com> 검색: 2018년 4월 5일

2. 단행본류

- A.K. Warder, *The Mātikā*, pp.xix-xxvii, ed. by A.P. Buddhadatta Mahāthera, Mohavicchedanī, *Abhidhammamātikatthavaṅṅānā*, London: Pali Text Society, 1961.
- Bhikkhu Bodhi, *A Comprehensive Manual of Abhidhamma*. Kandy: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2010.
- Erich Frauwallner, *Studies in Abhidharma Literature and the Origins of Buddhist Philosophical System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5.

- Peter Harvey, *The Selfless Mind: Personality, Consciousness and Nirvana in Early Buddhism*, Richmond: Curzon Press, 2004.
- R.P. Wijeratne and Rupert Gettin, *Summary of the Topics of Abhidhamma: Exposition of the Topics of Abhidhamma*, Oxford: The Pali Text Society, 2002.
- Y. Karunadasa, *The Theravāda Abhidhamma: Its Inquiry into the Nature of Conditioned Reality*, Hong Kong: Center of Buddhist Studies, The University of Hong Kong, 2010.
- 대림스님·각목스님 옮김, 『아비담마 길라잡이 1』,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2017.

3. 논문류

- Lance Cousins, ‘The Paṭṭhāna and the Development of the Theravādin Abhidhamma’, *Buddhism IV*, ed. by Paul William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5, pp.52-70. <*. *Journal of the Pali Text Society* 9: 22-46, 1981>
- Pyi Phyo Kyaw, “Paṭṭhāna (Conditional Relations) in Burmese Buddhism”, Dissertation, King’s College London, 2014.
- Rupert Gettin, *The Mātikās: Memorization, Mindfulness, and the List*, ed. by Gyatso, Janet, *In the Mirror of Memory, Reflections on Mindfulness and Remembrance in Indian and Tibetan Buddhism*, New York: SUNY. 1992.
- Wandoo Kim, “The Theravāda Doctrine of Momentariness: A Survey of Its Origins and Development”, Dissertation, Balliol College, Oxford, 1999.
- 김경래, ‘Avīci Hell and Wújiān in the Cognitive Process: Observations on Some Technical Terms in the Jié tuō dào lùn (*Vimuttimaggā)’,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44, Springer, 2016, pp.939-956.
- 김경래, 「동남아 테라와다의 정체성 확립과 바왕가(bhavaṅga) 개념의 전개(1): Nettipakarāṇa 와 Milindapaṇha를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제48호, 서울: 불교학연구회, 2016, pp. 257-282.
- 김경래, 「동남아 테라와다의 정체성 확립과 바왕가(bhavaṅga) 개념의 전개 (2): 『삐타나 (Paṭṭhāna)』 제1권 (Chatṭhasaṅgāyana vol.1)을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제50호, 서울: 불교학연구회, 2017, pp.199-225.

- 김경래, ‘Observations on the term Bhavaṅga as described in the Jié tuō dào lùn (*Vimuttimagga): Its proper English translation and understanding’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2018 (forthcoming, 페이지 미확정).

Observations on the Term *Bhavaṅga* in the *Paṭṭhāna* (vol.2, *Chaṭṭhasaṅgāyana*)

Kim, Kyungerae
Lecturer
Dongguk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evaluate the abhidhamma terminology ‘bhavaṅga’ which is found in the abhidhamma treatise *Paṭṭhāna* (Vol.2). Throughout this series of articles, I shall scrutinize the history and identity of the Theravāda tradition in Southeast Asia.

The first written mention of the term bhavaṅga is in the *Nettipakarāṇa* and *Peṭakopadesa*. These two texts convey the earliest usage of the term which defines it as a factor (aṅga) of existence (bhava) or the twelve links of the Dependent Origination. The *Milindapañha* shows us the next step for the doctrinal development of the term. The term bhavaṅga in this text is described as a non-active state of mind, rather like a dreamless deep sleep.

The *Paṭṭhāna* is the first text that describes bhavaṅga as a sophisticated abhidhamma terminology for the cognitive process. The occurrences of bhavaṅga in the *Paṭṭhāna* Vol.1 and 2 reveal that it is the resultant indeterminate (vipāka-avyākata) as well as conditioning for the advertent (āvajjana), the death consciousness (cuti-citta), or rebirth consciousness (upapatti-citta) as the proximate condition (anantara-paccaya).

Furthermore, the bhavaṅga possibly arises with four kinds of the mental factors (cetasikā) which are called the sustained application (vicāra), the zest (pīti), the pleasant (sukha) and the equanimity (upekkhā). Given that these mental factors are

the constituents of meditation (jhāna), the bhavaṅga arises throughout the spheres, namely, from the sense-sphere to the supramundane.

Keywords

Paṭṭhāna, bhavaṅga, vitakka, vicāra, pīti, sukha, upekkhā

2018년 05월 02일 투고
2018년 06월 12일 심사완료
2018년 06월 26일 게재확정